

기술표준뉴스

▶ 기술표준원 가족연찬회 실시



기술표준원은 창의·실용적인 기술표준행정의 정착을 위해 KS-KATS 운동을 전개하고, 최고의 Rainbow형 조직을 추구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08년 5월 1일(목요일) 13:00~19:30 동 증강당에서 남인석원장이하 전직원 220명이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 Rainbow 조조 : 각각각색의 Star가 모여 변화의 역사를 추구하는 최고의구성체를 의미

주 행사내용은 지식강국을 위한 표준·특허 전략(이상희, 대한변리사회회장), 웃음을 통해 내안에 거인을 깨워라! (조학균, 환경영연구소장), 傳統音樂, 이것만

은! (김은지, 인덕대학교 외래교수), “기표원의 바람직한 Star 상 (바꾸지! 바꿔지! Star가 되자!)”을 주제로 식위패널 토론을 실시하였다.

▶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단 발대식



기술표준원은 전국 39개 대학 소비자관련 학과 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고, 지난 5월 2일(금)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성신여대 강당에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품 안전에 관한 정책과 국제동향,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해 설명도 함께 실시하였다.

대학생 안전지킴이는 전국을 수도권, 대전권, 대구권,



부산물, 광주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 이부를 모니터링하게 되며, 제품안전에 대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안전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공산품의 안전 구입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게 된다.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단은 소비자관련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산품·전기용품·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직접 감시하는 소비자 전문가로서 현장체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 총회



태평양지역 24개국이 지역표준화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활동의 강화를 위한 PASC총회가 지난 4.22~25일 간 상해에서 개최되었다.

- * PASC는 태평양지역표준회의체로 회원국간 표준화협력관련 논의 및 정보교환을 하며, ISO/TMB(기술관리이사회) 선출투표가 가능한 ISO 18개 이사국중 6개국, 그리고, IEC/CB(이사회) 및 SMB(표준관리이사회) 선출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IEC 정회원국 52개국중 13개국이 PASC 회원국으로 참여

이들 계기로 국제표준에 영향력이 큰 ISO/IEC의 정책위원회(ISO/TMB, IEC/CB, SMB)의 금년말 임원선출에 대비해 지식경제부(허경 기술표준정책국장)는 미국, 일본 등 총13개국과의 접촉을 통해 지지를 요청하

였으며, 향후 이타 양자·다자회의를 통해서도 아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IEC의 CB(이사회)위원으로 주덕영(반도체협회 부회장)위원이, 그리고 SMB(표준화관리이사회) 위원으로 박세광 경북대 교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말로 인기가 만료될 예정인 바, 금번 재진출할 예정이다.

➤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

9.11 테리 이후 국제 테리 위협의 증가로 항공기, 선박 등의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되면서, 물류보안인운 강력한 무역장벽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미국은 지난해 컨테이너 100% 사전검색제도를 발표하며 물류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FI'는 올해부터 자체 물류보안 제도인 공인경제운영인(AEO)제도를 실시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영토로 만입되는 화물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국가별로 상이한 물류보안 규정의 준수와 화물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보안경영시스템(ISO28000)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인증기관으로 (사)한국선급을 인정하였다.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28000 인증을 취득한 항만이나 기업은 물류보안체제를 국제표준에 적합토록 갖추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다.

본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물류 전반에 걸쳐 국제수준의 물류보안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물류 경쟁력 촉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인증기업은 ISO 28000 인증 획득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및 대기 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 신기술(NET) 인증서 수여

티타늄수소화물(TiHx)을 이용한 세계최초의 '분발사출성형 휴대용용 티타늄부품 제조기술' 과 국내최초의 '리플로우 가능 코인형 리튬이차전지 제조기술' 및 '쿠에이트테일러 유체흐름을 이용한 연속식 절정화 기술' 등이 개발되어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기술 인증마크(NET마크: New Excellent Technology)를 받았다. 이번 NET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앞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추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인증기업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이와 같이 개발한 개발완료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과급효과가 크고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30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2008년도 제1회 신기술(NET)로 선정하고, 지난 4.29(화) 16:0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양재동 소재)에서 신기술인증서를 수여하였다.



➤ 2008 한국국제보석시계전시회

“금 제품도 이젠 그램(g) 단위로 사세요.”

기술표준원은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지난 24~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8 한국국

제보석시계전시회'에 법정계량단위 홍보관을 설치하고 순금 제품을 g단위로 판매하였다.

이번 시범판매기간에서는 일단 순도 99.99%의 순금 제품만 취급되었으며, 기표원은 앞으로 14K, 18K 등의 금제품에도 g단위 판매를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14K, 18K 등의 합금제품은 가공처리과정에서 3g, 4g... 등의 정수 단위로는 제작되기 어려워 순금제품처럼 명료하게 정수 단위로 끊어지지 않지만 g단위 판매는 계속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기간 중 홍보관에서는 아기 돌반지를 2g, 3g, 4g짜리로 만들어 판매하고, 내지, 거북이 등 동물모양의 금제품도 5~100g짜리 정수단위로 제작해 판매하였다. 판매 가격은 중간 유통마진을 뺀 행사가격으로 시중 소매가 보다 저렴하였다.

그 동안 금제품은 비법정단위인 3.75g(1돈)이나 1.875g(반돈) 단위로 거래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계량단위인 g단위로 금제품을 사고팔게 되면 보다 정확한 무게 측정이 가능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상거래 진서를 확립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2g, 3g, 4g짜리 순금만지용 금형을 제작해 전국 6개 지역(서울, 인천,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순금제품 공장에 보급했지만 아직 돈 단위로 사고파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g단위의 금제품 거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행사 기간 중 전시장 내 가두 홍보, 영상물 상영,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순금 제품의 g단위 거래를 적극 홍보하였다.





▶ 가족의 달 5월, 온가족이 안전 체험

기술표준원은 안전을 주제로 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우리가족 생활안전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4-5일(2일간)까지 의왕시 철도 박물관에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물론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어린이가 사용하는 공산품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안전배움터, 안전놀이터, 계량체험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배움터에서는 장난감총(BB단 총) 위험성 시연을 통한 안전한 장난감총 사용방법,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하는 안내·안전표지 맞추기, 공산품 안전을 주제로 한 '내 몸을 지켜주는 보호장구' 코너로 체험식 배움터가 마련되었다.

안전놀이터에서는 KPS마크 안전그림 퍼즐 맞추기 안전기원 메시지를 담아 함께 완성하는 공동화 '특명! 안전기원 메시지를 담아라', 가족포토존 '활짝, 우리는 안전가족' 플라로이드 카메라 촬영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참여 마당이다.

※ KPS(KOREA Products Safety, 공산품안전마크)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포장 및 자동차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전시와 카시트 무상대여 정보도 안내 받았다.

이와 더불어 계량체험터에서는 어린이들이 전통 장터를 통해 판매하는 물건들의 무게, 크기 등을 환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량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였다.



▶ 공공 구매기관과 NEP·GR인증기업 워크숍

기술표준원은 NEP·GR 인증제품의 구매확성화를 위하여 신제품(NEP·GR)인증기업과 공공기관 구매·기술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공공구매기관과 NEP인증기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2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 금년부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워크숍으로 개최하며, 이번 워크숍은 경기지역 공공기관 200여명을 초청하여 지난 4월 17일, 18일 양일간 양시파인리조트에서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NEP인증 신제품을 2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어, 신제품 구매는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NEP 공공구매 : ('01) 295억원 → ('05) 1,823억원 → ('06) 2,309억원 → ('07 상반기) 654억원

아직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구매담당자들이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부담, 민원발생 소지 등을 이유로 구매에 소극적인데, 그 이유는 의무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워크숍 개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제품 인증기업과 구매기관 담당사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직접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상호간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NEP인증제도·외무구매제도 소개뿐만 아니라 인증업체의 애로사항과 구매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제조자와 구매자가 상생협력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각 지역별 공공기관을 초청하여 지역별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공기관에서의 NEP인증 신제품 구매 확대는 물론 민간 내기업까지 구매 확대를 촉진할 예정이다.

▶ 화장품 산업 표준화 국제심포지움



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14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과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화장품 산업 표준화 동향 국제심포지움"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2008 서울 국제 화장품·미용박람회」 기간(2008. 4.11~14, COSMOBEAUTY SEOUL) 중에 개최된 것으로 화장품 업계,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국제적 행사이다.

※ 07년 '국제화장품 안전관련 심포지움'에 약 100명 참석

화장품 산업은 삶의 질 향상, 소비자의 미적 요구 중

대와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 및 품질 보증시스템 등의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일반공산품과는 별도로 화장품 관련 법규를 운영하고 있어 화장품의 시험항목, 기준, 방법 등이 국가마다 상이한 실정이다. 이러한 법규는 국제무역상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표준화기구(ISO/TC 217)에서는 국가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화장품 시장은 약 150억불(원화 144조) 규모로 소비자의 웰빙 신호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FTA 추진 등 급속한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의 선진 등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장변화에 따른 접근성 및 표준화 현황 등을 국내 화장품산업 현장에 알려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통한 무역기술장벽 극복 등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기술표준 2008, 5